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9. 28.(수) 11:00 < 9.29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9. 28.(수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서성태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 박용균 (044-203-5664)

산업부 통상차관보, 주한유럽연합대사단 간담회 참석

- 한-EU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원전 건설 협력 의지 표명 -
-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공조 및 EU탄소국경제도 등 협조 요청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 정대진 통상차관보**는 9.28(수) **주한EU대사단*과의 간담회**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EU간 산업·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네덜란드, 덴마크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스웨덴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유럽연합, 이탈리아, 체코, 크로아티아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헝가리 등 18개국 대사 참석(국가명 가나다順 표기)

□ 정 차관보는 **국제적 물가 상승(인플레이션) 및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** 등 **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**을 위해 **새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·통상·에너지 정책을 소개**하면서,

○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**복원력 있는 국제적 공급망 구축**을 위해 **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**을 강조하였다.

□ 정 차관보는 양측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 사례로서 **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유럽연합의 소재·장비 기업들이 참여**하고 있고, **유럽연합의 전기차 산업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**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

○ 한국과 유럽연합 모두 **친환경·저탄소 성장전략을 추진중**인 만큼 **추가적**

협력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.

○ 특히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, 한국 정부가 **탄소중립 달성, 에너지 안보 강화**를 위해 **적극 추진중**인 **원전 분야에 대해** 유럽의 **신규 원전 도입·운영국**과 **적극 협력할 의지**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*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체코, 폴란드, 네덜란드 등 신규원전 도입 추진중

□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과 관련, 정 차관보는 지난주 **우리 정상의 미국 순방 계기**에 **미국측에 IRA와 관련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**하였다고 언급하면서

○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유럽연합 회원국(독일, 스웨덴 등)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, **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**을 위해 **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**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정 차관보는 **유럽연합이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공급망 실사 지침, 역외보조금 규정, 통상위협 대응조치** 등 여러 정책들이 **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**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**일회용 플라스틱 지침***이 친환경 소재인 **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**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과정에서 **바이오 플라스틱도 허용될 필요**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* Single Use Plastic Directive: 종이·전분 등 화학·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(Natural Polymer)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·판매를 제한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